

논단



김일성과 김정일의 모습

김정민 /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정치적 요인이 남북 경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계열 분석:
정경 분리 원칙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 욱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선임연구원

김일성과 김정일의 모습

김정민 /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통치자로서의 김일성과 김정일을 비교해보면 첫째, 성격 면에서 김일성은 비교적 호탕하면서도 꼼꼼하고, 자신에게 충직한 인물들과는 동지적 의리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정적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성품을 가졌다 할 수 있고, 대인 관계에서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원만성을 유지하려 했던 성격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정치적 판단 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통치체제 유지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나이에 맞게 원숙했으며 적당한 신축성과 다양성이 인정되나 적절히 활용할 줄 모르는 합리적 사고가 부족한 보수적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것이 신세대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김정일은 먼저, 부자 세습의 비민주성을 부당으로 느낄 정도의 과민성 성격 소유자라는 것이다. 김정일은 오랫동안 김일성을 수행하면서 철칙으로 느낀 그의 합법칙성은 분단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미국을 의식해야 한다는 점, 사회주의 국가들의 비웃음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점 등을 사무치게 느낀 결과로 평가된다. 또 인사 관리에서 대중보다 소수 간부를 더 중요시한다는 사실이다. 과거 김일성은 대중은 대중대로의 정책 구분을 하고 노선을 제시했다면, 김정일은 대중과 당 조직·군사 조직을 이끄는 핵심 간부들만 장악하면 만사형통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것은 당 간부 인사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기별로 제시되는 그의 지시 내용들이 잘 말해주고 있다. 또한 세부적 탐구와 시시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간섭하려는 모습에서도 잘 나타난다. 둘째, 리더십에 있어서 김일성은 언변도 좋았고 포섭력과 설득력도 있었으며 인민 대중과 간부들을 적절히 배합하면서도 별개의 구조로 보고 이를 합리적으로 나누어 관리했다면, 김정일은 간부들 일면만을 중시하며 당 조직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점이 크게 차이난다. 또한 김일성은 나름대로 사회주의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주의 나라들의 경험과 교훈을 체득할 수 있었던 관계로 비교적 많은 사회주의 경제 상식을 쌓을 수 있었던 데 반해, 김정일은 문화 예술 분야에만 치우쳐 있다가 당 사업 전반을 관장하게 되어 사회주의 경제 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천적 교훈과 경험을 쌓을 수 없었다. 김일성은 군사 전문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유격 투쟁의 현장에서 교훈을 얻었고, 일정한 하위 장교급의 생활로부터 군 최고 통수권자에서 민족 내란 전쟁도 치른 인물이라는 점에서 김정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의 간부 관리 방식 원칙은 기본 계급 출신으로서 필요한 교육 과정을 마친 대상들 가운데서 혁명과 건설 사업을 통해 오랜 경험과 교훈을 체득하고 현실 속에서 검증된 인물 순위로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간부 관리와 인사 원칙은 계급적 논리보다 충성심 우위 원칙을 고수하면서 현실에서 검증된 사상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들을 더 선호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 견문과 능력에서 김일성은 제한되었지만 반일 투쟁, 구소련의 망명 아닌 망명 생활로부터 해방 후에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 국한되기는 했으나 나름대로의 견문을 쌓을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김정일이 김일성과 같은 국제적 안목이 부족할 수 있으나 북한통치체제 특성으로 볼 때 통치자의 개인 능력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여사를 통해 미래가 설계되어온 인류의 교훈이 말해주듯이, 민족 통일을 위한 어려운 과제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선행 조건이 북한의 실체를 냉철한 판단으로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한 뿐 아니라 공산체제의 기본 요구가 통치자 중심의 지배체제라는 점과 특히 북한은 공산체제 가운데 가장 독자적 통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절박하다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치자로서의 김일성과 김정일의 같은 점과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우리 민족 속담에 “한날 한시에 나온 손가락도 길고 짧은데”로 표현되어 어떤 경우든 같을 수 없음을 주장하는 선조님들이 남겨주신 말이 있다. 원리적으로나 생활 과정에서 이 말의 긍정성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고 보면 이 말도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즉, 한날 한시에 태어난 손가락의 길고 짧은 것은 사람의 인체 구성상 진화·유전되어온 짧고 굵은 엄지가 있어야 하고, 엄지보다 길고 가느다란 중지가 있으며, 그보다 짧고 가느다란 약지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논조로 부자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전 인자에 의해 자식들 외형은 대부분 생부를 닮게 마련이겠지만, 성장 과정과 교육 정도, 사회 환경과 주변의 영향을 받는 정도의 차이로 성격 형성과 가치관, 취미와 사

상까지도 반드시 부모를 닮는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현상은 후진국 환경과 선진국 환경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제도의 차이와 인류 사회가 발전 변화되면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이치가 법칙적 요소라고 볼 때, 김일성과 김정일의 차이점을 현실에 입각해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두 사람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어려움도 없지는 않지만, 그들이 행한 비공개 또는 공개석상의 행적들과 그동안 구사해 온 노선과 정책들을 집행해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더듬어보면 반드시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다.

성격·기호·취미 생활

김일성의 성격

김일성은 생활만큼은 즐길 줄 아는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철따라 옷도 입을 줄 알았고, 음식과 술도 적당히 즐길 줄 알았으며 여성들도 다룰 줄 아는 인물이었다고 측근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유일 권력자의 위치에서 이같은 시시한 사생활 문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구애되는 조건이 아니었으므로 이들의 평가를 정확하다고 믿기에는 무리가 있다.

김일성의 성격은 비교적 호탕하면서도 꿈

끔하고, 자신에게 충직한 인물들과는 동지적 의리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정적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성품을 가졌다 할 수 있고, 대인 관계에서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원만성을 유지하려 했던 성격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또 특유의 언변으로 적절한 정치적 호소를 잘 구사했다고 말할 수 있다. 김일성은 그의 통치 스타일이 대중 발동을 위한 현지 지도라는 특이한 방식을 구사한 면도 그렇다. 물론, 연출된 것이지만 대중들과의 조화를 잘 이루도록 노력했다. 김일성 정권이 수립되어 그가 내각 수반으로 경제 지도 활동을 하던 사회주의 집산화 초기 단계에서 북한 경제는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의 한 가지는 김일성의 이와 같은 역할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른 측면에서 순수한 개인 김일성의 성격을 평가하면,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 이론을 주장하는 개인 우월감을 가졌으며, 욕심이 많고 완강한 고집의 소유자였으며 신축성을 검비한 인물로도 평할 수 있다. 특히, 정권욕에 대한 집착력이 대단히 강한 편이며, 그로부터 생산됐을지도 모르는 경계심과 보수성이 강한 성격이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통치자답게 관록도 가지고 있어 최측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 평할 수 있다. 김일성이 죽기 전까지 회의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추측하건대, 김일성은 1992년 자신의 80회 생일을 마감으로 사실상 모든 국가 통치권을 김정일에게 넘겼다고 할 수 있다.

주석직과 당 총비서직은 공식으로 넘기지 않았지만 사실상 역할은 이미 김정일이 담당하고 있던 것만큼 절차만을 남겨놓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상황은 날로 악화일로로 꺾고 있었고 나아질 전망도 보이지 않자, 김일성은 다시 경제 전반을 감독하기 시작했고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와중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김일성은 모향산에 국가 경제 관료들을 불러놓고 전력 문제, 제철·제강 문제, 철도 운수 문제, 식량 문제 등 당면한 현안들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점검하고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한 부분이 이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성격상 가장 큰 특징은 잘된 일에 대해 너그러움을 베풀어주었다는 평이고, 가장 약점은 한 번 잘못보면 끝까지 잘못 보려는 습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김일성의 성격을 반영하는 실제 예들은 많으나 대부분 공개된 이같은 자료들은 노동당이 그를 우상 숭배할 목적으로 만들어낸 일화들이므로 진실성이 없고, 다만 한 가지 실제 예를 들면 자기 가족·가문들에 대한 배려와 관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도, 이것이 인민 대중들에게 잘못 인식될 것을 염려해 좀처럼 공개하지 못한 모습들이 일부 나타난 부분인데, 그것은 숙부 김형록이 죽었을 당

서 측근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국가 행사로 늦게야 찾은 사실을 볼 때, 그에게 책임감과 같은 것이나 외부의 시각을 의식하는 감각은 있었다는 사실로는 충분하다.

물론, 이것은 김일성 가계 우상화와도 관련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잘못 비쳐지면 오히려 자신의 독재 통치의 실체를 증명하는 등 정책적 오류를 빚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깔려 있어서였겠지만, 어떠한 모순 행위도 서슴치 않는 김일성으로서 그가 절대 권력자라는 위치에서 이와 같은 행위도 크나 적으나 나타났다고 생각할 때 어디까지나 절제의 대목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같은 성격으로부터 김일성이 당을 관장하거나 국가를 통치할 시기에는 당대회와 당전원회의나 최고인민회의 같은 것을 해당 시기에 열지 못한 때는 있지만, 늦게라도 형식성을 갖추어서 관행을 지켜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김정일과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김일성의 개인 성격상 나타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정치적 판단 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통치체제 유지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나이에 맞게 완숙했으며 적당한 신축성과 다양성이 인정되나 적절히 활용할 줄 모르는 합리적 사고가 부족한 보수적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

어, 이것이 신세대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김일성의 기호 및 여가 생활

김일성의 기호는 젊었을 때는 술을 좋아했다. 한창 때(60년대) 그의 주량은 4 홉들이 양주 한 병 정도였으며 담배도 즐겨 피웠다. 그러다 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은 60 회갑 후인 70년대 중반부터라 할 수 있다. 김일성은 60년대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었다. 그후 점차 비대해진 몸 전체를 종전 심장 기능으로 유지하면서 심장에 절대적 부담이 가해졌기 때문으로 의학자들과 측근들은 분석했었다.

김일성은 낚시도 좋아했고 등산도 가끔씩은 좋아했지만, 특기상 지방 현지 지도가 많아 별도의 등산 같은 것은 하지 않고 별장 생활시·지방 지도시 등에 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성이 좋아했던 음식 종류로서는 해산물 종류의 생선회, 쏘가리 등 민물고기탕·육식도 좋아했으며, 특히 단고기(개고기)를 무척 즐기는 편이었다.

김일성이 술과 담배를 끊은 것은 80년대 중반으로 술은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마시지 않았고 담배는 완전히 끊어버렸다. 스포츠는 좋아한 것이 거의 없으나 전 호위사령관 전문섭의 부관 조민성 중장의 전언에 따르면, 탁구를 별장 안내원 처녀들과 이따금 치는 것외에는 직접 스포츠를 즐기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말까지 사냥만은 즐겼는데 그것도 별장 사냥터에서만 행해졌다.

승용차를 직접 몰거나, 보트를 직접 운전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고 수영 같은 것도 했다는 말은 들어본 바 없으며, 별장이나 특각 등에서 불러들인 여자 아이들과 사진 촬영(포르라이드), 영화 관람 등을 즐겼다고 전해졌었다.

김일성이 좋아했던 색상은 약간 짙은색 계통과 회색 계통을 좋아했으며 의상 색깔도 이같은 색을 대체로 선택했었다. 60년대 이전에는 넥타이를 맸지만 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즉 유일 사상화가 시작되면서 넥타이를 매지 않고 스텡에리(인민복) 형식을 취했으며, 4계절에 맞는 옷들을 신경을 써가면서 입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김일성은 신발과 양복 색깔을 동일하게 맞추어 입었으며 모자를 쓸 경우 코트나 외투 색깔도 모자 색에 맞추는 등 의상에 신경을 많이 썼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가 김정일에게 노동당 전권을 이양한 80년대 초·중반 이후에는 다시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으며 대체로 화려함을 보이려고 노력하기도 했었다.

김일성의 집무실이나 전용 별장들에는 그가 좋아하는 색깔의 카펫을 영국에서 주문 생산해 사용했으며, 가구와 사무 용품들도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들여온 흑단·홍

단·백단 수정들로 원목 가구와 사무 기기들을 만들어 썼다. 심지어 그의 온천·약수 별장들과 침실들에는 신선한 공기를 향시 공급하는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으며, 그가 사용하는 일체의 생활 도구·가전 제품·일용 잡화에 이르기까지 독일산, 일본산, 홍콩산, 미국산, 프랑스산, 이탈리아산 등 고급품들로 유명하다. 김일성은 집권 초기부터 사망할 때까지 여성 편력 사실은 이미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김일성 부자가 공통으로 좋아하는 승용차는 미국 리무진들로서 언제나 차의 색은 검정색이었으며, 이것은 오늘까지 변함이 없다. 또한 벤츠 600형도 갖추고 있었는데 역시 검정색으로서 유명하다.

김정일의 성격과 그 특징

김일성의 산모습을 줄곧 30여 년간 따라다니며 보아왔던 김정일로서는 많은 부분이 김일성을 닮은 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엄연히 이들 부자간 성격에서도 차이는 있다. 먼저, 부자 세습의 비민주성을 부당으로 느낄 정도의 과민성 성격 소유자라는 것이다. 김정일은 오랫동안 김일성을 수행하면서 철칙으로 느낀 그의 합법칙성은 분단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미국을 의식해야 한다는 점, 사회주의 국가들의 비웃음은 사지 말아야 한다는 점 등을 사무치게 느낀 결과로 평가된다. 이것은 그가 후계자로 지

목된 초기 자신을 내세우는 표현을 극력 제한시키도록 당 조직들을 관리한 데서 나타났고, 또한 한국에서 김 부자에 대한 평가는 결국 자신을 파멸로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그것은 체제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작성된 그의 지시문 '당 조직들의 임무와 역할'에서 나타났다.

제국주의 두목국으로 저목해온 미국이 바로 김정일 자신을 반대하는 국제 중심 세력이며, 바로 그런 미국이 한국과 혈맹 관계에 있다는 점을 그의 당내 지시문들에 항상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포괄하는 행동들이 나타났는데, 평양주재 러시아·헝가리대사관의 전과 장애를 목적으로 고층 건물을 짓게 한 사건과 국가 주요 기관들의 기요(기밀) 문서 취급 질서의 새로운 정립(부서 이름조차 숫자화, 간부들의 번호화, 중요 기관 기업소의 명칭을 000동무가 일하는 기업소 등), 방송, 출판 등 언론 기관들의 국가 기밀 문제 취급 지시를 제정했고, 간부들에 해당하는 교시와 '말씀' 침투도 대상별·계층별·부문별로 제한하여 기밀 유지력을 높이겠다는 발상 등이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또 인사 관리에서 대중보다 소수 간부를 더 중요시한다는 사실이다. 과거 김일성은 대중은 대중대로의 정책 구분을 하고 노선을 제시했다면, 김정일은 대중이야 당 조직들에 의존하면 의례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대상으

로 무시하고 대중과 당 조직·군사 조직을 이끄는 핵심 간부들만 장악하면 만사 형통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것은 당 간부 인사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기별로 제시되는 그의 지시 내용들이 잘 말해주고 있다. 또한 세부적 탐구와 시시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간섭하려는 모습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당 정책뿐만 아니라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확립하는 첫째 요구는 자신을 당 중앙으로 묘사하면서 사소한 문제라도 당 중앙에 보고하고 결론에 따라 집행하라는 요구를 강력히 내린 점이다.

오늘 북한내 모든 주요 사업은 두말할 것 없고 사소한 문제라도 김정일의 방침을 받지 않는다면 집행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문제이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해당급 라인에서 실정에 맞는 설계와 집행력이 동원되어야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겠지만, 이같은 구체화된 계획을 세우려면 모순된 부분도 삼입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부결을 염려하여 애초 방침을 제시하려 하지 않고 속수 무책이 상책이 된다는 견해가 오늘의 북한 사회의 현실이다. 즉, 지방은 지방에 맞게, 하부는 하부 기능에 맞는 인센티브를 인정해야 다양성이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보편적 원리임에도, 김정일은 이같은 이치를 깨닫지 못했을 리는 없으나 실천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통이 큰 작전'을 운운해왔다는 것이다. 개선문, 주체사상탑, 105층유경호텔 건설, 삼지연못가 사적지 건설, 룡라도5·1 경기장(15만 명 수용) 대형 구호, 대형 기계, 대형 건물, 예술에서도 5대혁명가극(꽃피는 처녀, 피바다, 당의 참된 딸, 밀림아 이야기 하라, 금강산의 노래), '조선의 별' 12부작, '이름없는 영웅들' 21부작, 민족과 운명 20부작 등 대형 작품을 제작하는 등 대형화를 줄곧 주장해왔다.

이것은 김정일이 통이 크기 때문에 대형화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성격과 심리를 부정하고 그를 증명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결과물들이다. 무조건 대형이 좋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누구나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김정일과 같이 타산없이 대형화만 주장하다 완성도 못할 바에야 그 손해가 얼마이며 후과는 또 얼마나 심각한가를 모르는 바가 아닐 것이다. 이런 것들이 왜 필요했겠는가 하는 것은 정치 인물 김정일의 후광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초 과정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광폭 정치·인덕 정치'의 근원이라 평할 수 있다.

북한 언론들은 후계자 김정일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술의 천재', '빛나는 예지와 통찰력을 지닌 걸출한 영웅', '백전백승의 지략을 갖춘 천재적 영도자' 등 갖가지 수식어를 써서 극구 찬양하고 있다. 그들의 체제 특성이 개인 중심의 통치라는 점에서 중

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인민들이 굶어죽는 현실을 좌초시킨 인물에 대한 우상 숭배는 결국 그 자체도 김정일의 강요와 무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한 빨치산 원로 1세대들에게도 인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숙청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물론, 김정일이 원로 1세대들을 고위 권자에 놓아두는 것은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그것은 김일성을 받들어 북한 정권을 수립한 원로들의 후광 효과를 이용하면 자신의 부족한 카리스마를 보충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며 반대 정적들의 견지하는 힘에 원천으로도 되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광폭 정치·인덕 정치'의 원리는 바로 이와 같은 김정일의 성격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기호 및 생활 취미

김정일은 취미와 기호에서도 특이하다. 그가 머리 스타일을 변화시킨 것만도 무려 여섯번째로 현재에 이른다. 최초 중앙당에 입적하면서 보통 머리(1)에서 70년대 초를 기점으로 스포츠맨의 머리형(2)으로 바싹 깎아올린 형을 하고, 공식적으로 당 및 무력 기관 종사자들에게 자기와 같은 머리형을 하라는 지시를 공문으로 하달해 한동안 이 분야 종사자들은 스포츠맨이 되어야 했었다(최초 후계자 선정 직후 사진 참조). 그후 난데없는

약간의 장발(3)을 요구해 다시 머리를 기르기에 이르고, 그후 단정히(4) 하라고 해 단정해지는가 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난데없이 퍼머 머리(5)로 둔갑해 깜짝 놀라기도 했으며, 그후 또 다시 자연스런 머리(6)를 요구해 현재에 이른다.

김정일도 술을 즐긴다. 이미 한국에도 잘 알려진 측근 파티에 입장하면서 양주를 맥주 쪼기에 가득 붓고(맥주 쪼기에 소주잔을 넣지 않음), 그것을 다 마신 사람만이 입장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한국식 폭탄주에 해당) 제도까지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는 꾸며진 얘기가 아니다. 주량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마련, 주량이 적은 대상들은 김정일이 만들어놓은 규정을 어길 수도 없어 부리하게 마시고 추태를 부리는 현상까지 종종 발생하는 것이 상례였다.

김정일의 주량은 대단하다. 양주 한병(헤네시) 정도는 거뜬히 한다. 그러나 80년대부터 담당 주치의의 진단에 의해 금주령을 받기도 해 오랫동안 술을 마실 수 없었다(김정일의 주치의는 김정일의 가족이나 측근 및 취사, 접대부족에 술을 권하는 것은 영도자의 건강을 해치려는 행위로 낙인함으로써 금주령이 해제되지 않는 한 감히 술을 권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을 쓰고 있음). 담배는 줄담배를 피우는데 대체로 뼈끔형이다. 그러나 흡연도 금지된 때가 있었는데, 이것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김정일이 좋아하는 음식은 시솜 힘줄 요리, 칠갑 상어알 요리, 바나 가재 요리, 해물탕과 민물회에 이르기까지 이색적인 음식 메뉴가 다종 다양한 편이다. 그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송어탕과 잉어회·방어회·광어회를 즐긴다. 김정일의 취미 생활은 사격, 사냥, 낚시, 보트 놀이, 애견 놀이(발정난 암견을 짝짓기 시키는 등), 맹수들의 생활 관람(싸움 등), 등산, 축구 경기 관람, 영화 관람, 예술 공연 관람, 예술 소조 공연 관람, 승마, 골프, 탁구, 마작 등을 좋아한다.

김정일의 일과는 불규칙하다. 주로 야행성이며 아침 기상이 늦은 편이다. 잠을 많이 자지 않는다는 측근들의 의아해하는 모습도 이색적이다. 어떤 때에는 밤샘 파티 놀이에 지쳐 있다가 파티가 끝나면 취침하겠지 했는데, 파티 참가 동료들을 다 돌려보낸 후 자신은 또 다른 행사에 참석하여 측근들을 놀래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좋아하는 색상은 김일성과 비슷하게 밝고 어두운 중간형의 색깔을 좋아한다. 의상은 한국식으로 캐주얼을 즐긴다는 편인데, 주로 착용하는 옷은 잠바 차림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듯싶다. 약간 붉은 쥐색 계통의 잠바 차림을 자주 하는데, 이것도 최초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극후 당을 관장하기 시작하면서 노동당 청사 직원들에게 모두 똑같은 형태로 기성복을 제공하여 그 관행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80년대에 들어서면

서 김일성이 넥타이를 매도록 권고한 사람이 바로 김정일이다. 그는 그때 노동당 직원들에게도(해외 주재원 및 부과장·과장 이상), 반드시 넥타이 차림을 요구했고 중절모를 쓰도록 강요해왔다.

이때 김정일(50회 생일 계기)도 조끼 받침한 양복 차림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잠깐이고 평시는 잠바를 즐겨 입는다. 겨울에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외부 포켓 장식의 방한복을 착용하며, 모자는 검은색 수달피, 아니면 밍크 모피로 만든 부드러운 작은 창 달린 모자를 쓰기도 한다. 평시 구두는 여름에 쥐색 계통, 겨울에는 검은색 계통의 신발을 신는다. 이것은 김일성의 과거 행태를 모방한 모습이기도 하다. 다만, 신발의 굽을 높여 신는데 아마 적은 키에 대한 콤플렉스로 평가된다. 김정일이 사용하는 일체의 사무 용품이나 일상 생활 용품들은 외제를 주로 사용한다. 방 안의 카펫이나 장식물, 책상과 TV, VTR, 오디오 등은 물론 심지어 안경, 만년필, 장식 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외제로 무장하고 산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외제를 선호하는 생활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리더십

정치 이론적 견문

부자 통치로 이어지는 북한에서 인민들의

시각에 비치는 이들 부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버지가 잘하나, 아니면 아들이냐? 이런 문제가 제시된다면 당연히 북한체제를 수립했고, 또한 오랜 기간 통치해왔음으로 대부분 당연히 김일성이 우세하다고 평가될 것이다. 이것은 오랜 기간 인민들에게 비쳐진 김일성의 후광 효과로 하여 더욱 이러한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김일성의 통치 방식은 자기 주장의 통치 이념도 제시했고, 이념에 입각한 목적과 수행 방법을 제시했으며, 그를 당 조직 운영을 통해 시기별로 세부 과제를 주고 자신이 직접 다니면서 일일이 챙기는 타입이었다.

즉, 당 조직을 통해 과제를 제시하고 그 집행을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워놓고 현지 지도를 통해 수행 과정을 검토하여 잘잘못을 가려내 추궁과 칭찬이 배합된 나름대로의 적절한 방법을 구사함으로써 항상 모든 부문과 분야가 움직이도록 했다. 이에 반해, 김정일은 당 조직 운영을 명령식으로 대처하고 간부 그룹 지도 일면에만 치우치면서 암행식 통치 방식을 구사한다는 점이 다르다.

김일성은 언변도 좋았고 포섭력과 설득력도 있었으며 인민 대중과 간부들을 적절히 배합하면서도 별개의 구조로 보고 이를 합리적으로 나누어 관리했다면, 김정일은 간부들 일면만을 중시하며 당 조직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점이 크게 차이난다. 김일성은 대부분 중국·구소련 공산당들의 통치 방

식과 노선을 북한 실정에 맞게 적용시켜 시기별 정치 이론과 당의 노선에 관한 입장이 뚜렷했다면,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론을 정당화시키는 외에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지 못했고, 언변은 있으나 아직 단 한 번도 자기 정치 이론으로 인민들을 향해 설득력있고 자신성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동안 인민들에게 보여온 김일성의 모습이 후광 효과가 극대화된 이후로서 김정일의 정치 이론적 견문 부족과 자질이 쉽게 비교될 수 있는 환경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상식과 지도력

사회주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북한도 당시의 남한과 다를 바 없는 사회 환경이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사회주의경제체제가 도입된 시기는 1958년 사회주의 개조사업이 완성된 이후부터이다. 김일성은 북한 체제 수립을 공산주의 원론에 입각해 수립했지만 경제는 당장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도입할 수 없었다. 그것은 김일성도 물론 그랬지만 북한 내에는 사회주의 경제 상식을 가진 인재들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산업 구조도 식민지 낙후된 형편이었기 때문이었다.

김일성도 사회주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문맹자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중국·구소련 공산당의 선행 방식을 적당히 도입함으로써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것

은 또한 해방 직후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인민들의 공산주의가 좋다는 맹목적 환경 조성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미 중앙 집권적 사회주의 비효율적 계획경제체제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시기로서, 우방인 중국·구소련 공산당의 선행 모델도 이용할 가치가 없었고 특히, 주체사상의 확립으로 경제에서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의 고착화는 이를 더욱 어렵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인민 대중들과 경제 관료들은 이미 경험으로 축적된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한계를 잘 알게 된 환경에서 효율성이 낮아진 환경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김일성은 나름대로 사회주의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주의 나라들의 경험과 교훈을 체득할 수 있었던 관계로 비교적 많은 사회주의 경제 상식을 쌓을 수 있었던 데 반해, 김정일은 문화 예술 분야에만 치우쳐 있다가 당 사업 전반을 관장하게 되어 사회주의 경제 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천적 교훈과 경험을 쌓을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이같은 분석이 가능한 것은 김일성이 행한 당 조직 운영에서 1945년부터 1980년까지 35년간 1949년 합당대회와 두 번의 당대표자회의를 포함해 6차당대회까지 모두 아홉 차례의 당 최고 기관을 운영했으며,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전원회의(5차당대회 기

간, 1980년 10월)를 총 77 회 개최하고 시기별 정책집행총화와 새로운 과업과 방도를 제시했다.

1980년 6차대회 이후 1990년까지 당중앙위 전원회의는 17 회가 더 개최되었지만, 이것도 사실상 김일성이 행해오던 구관행에 의해 김일성의 지시로 열린 것이지 결코 김정일의 설계로 열린 전원회의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면 1990년까지 45 년간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는 94 회가 열렸는데 경제 문제를 다룬 의안은 총 85 건이며, 그 가운데 김정일이 당 관리 이후 제시된 경제 의안은 40 건에 이르지만 당시 전원회의에 제출된 토의 의제만은 김일성이 직접 제안했던 점을 감안하면, 김정일 독단으로 제안된 전원회의에서 토의된 경제 문제는 몇가지 안된다.

김일성은 60년대초 '천리마운동'을 제시하고 그를 노동당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총노선으로 규정했으며, '청산리정신과 방법'을 강서군청산협동농장 현지에 내려가 체험한 데 근거해 농촌에서 협동농장영농방법론을 제시했고, 대안전기공장에 내려가 기업 관리 형편을 요해하고 그 경험에 기초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제시해 생산 공장들의 경영 활동의 방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해 농촌 경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정일이 경제 분야에 제시한 경제 정책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속도전', '70일전

투', '3대혁명소조운동',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영웅따라배우기운동' 등 경제 발전 대중 운동을 위한 호소적 명분만 제시했을 뿐이다. 당시 김정일의 최대 관심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후계자로 공고한 인정을 획득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결가지' 청산, 당권 장악, 김일성 우상 숭배물 제작을 비롯한 우상화 작업 박차에만 몰몰했다.

오늘 북한 인민들이 이들 부자의 경제 지도력에 대한 평가 인식은 한 마디로 함축하면, 김정일은 김일성의 수준 정도까지 되려면 50 년 이상 걸려도 어렵다고 보는 부류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김일성이 내각 수상으로 경제를 관리할 때는 인민들이 옥수수 밥이라도 굶지는 않았고, 배급을 주지 못하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인민들은 오늘 북한 경제가 피폐된 원인은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비효율적 경제체제때문이라기 보다 김정일의 경제 관리 운영이 서툴렀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 인민들의 이상이라야 고작해 배부르게 밥 먹여주는 정도의 소박한 요구가 전부인데 그것도 해결해주지 못한 김일성 부자를 원망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하루아침에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로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도 인민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책이 나와야 함을 절박하게 느끼는 것만은 사실이다. 김정일과 노동당도

이제는 이와 같은 인민들의 요구를 알고 있으며 그를 실천하자면 체제가 위협받고, 체제 안정쪽으로만 가면 경제 희생이 어려운 진퇴 양단의 갈림길에 놓여 있음을 실감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북한이 가장 쉽게 경제 문제를 푸는 방도는 경제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대폭 줄이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시장 경제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개방 과제를 실천에 옮기는 문제이다.

그러면서 김정일은 한국이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에 있는 이 시점을 자칫 잘못 하면 오판할 소지도 가지고 있다. 그들 언론의 보도 자료들을 보더라도 이같은 우려가 예상된다. 마치도 한국이 3,000억 달러 이상의 외채를 지고 있으며 앞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국내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의해 매각되어 사실상 완전한 경제적 식민지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억측도 가능하다. 만약 이같은 인식이라면 한국을 보다 더 알아야 한다. 김정일과 그 측근들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석해야 하며 이런 오해가 남북 관계를 진전을 막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유력한 경제 선진국으로 동쪽인 남한을 가지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큰 무리없이 경제 희생을 위한 방도를 찾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게 할 경우 민주주의 의식의 확산으로 체제 위협을 받게 된다는 우려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다.

군사 경력과 지휘력의 차이점

북한 군사 내부 규정에는 인민군 최고 군사 칭호인 차수·원수·대원수 칭호 자격 여건에 있어서 차수·원수·대원수는 국제 전쟁 1차 이상, 국내 전쟁 1차 이상을 승리로 인도한 경력과 現 對敵 무장력과 동등 또는 그를 격파할 수 있는 무력의 최고 군사 통치권자에게만 수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요구와는 무관하게 김정일은 전쟁 경험도, 군복무 경력조차 없이도 원수 칭호를 적용했다.

북한노동당 역사에서 김일성의 반일 운동 기간을 15 년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30년대 초부터 해방되는 1945년까지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역사 자료들에는 김일성의 구소련 원동 지방에 피신한 기록은 극력 숨겨오고 있다. 김일성의 정확한 만주 일대의 반일 빨치산 활동은 1932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1934년경에 반일 부대 전투원으로 입적된 후 1936년경 주보중 휘하의 한개 대대를 맡은 지대장의 역할에 지나지 않았음을 역사 자료들은 밝히고 있고, 그나마 김일성이 인솔하는 조선인 반일 소부대는 1941년경 일제 토벌을 피하여 당시 구소련의 원동 하바로브스크 지방으로 쫓겨갔다가 해방되면서 입북했다.

해방후 분단 상황에서 김일성은 6·25 민족 내란을 도발해 남침했다가 패하고 말았지

만, 그들은 줄곧 '조국해방전쟁'으로 주장하면서 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고 함으로써 김일성의 '대원수' 자격을 부여한 셈이다. 김일성 부자는 똑같이 군사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인물들이다. 하지만, 김일성은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부합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김정일은 원수 칭호 자격은 고사하고 장령으로서도 자격 미달이다. 한마디로 이들 부자간의 군사 경력 면은 따질 필요도 없고 비교할 만한 상대도 되지 않으리 만큼 큰 격차를 가진다.

그러나 김정일은 군사 전문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고등 교육을 거친 데 반해, 김일성은 중학 중퇴의 학력밖에 안된다. 이것이 사실이지만 당시의 중학 교육 수준도 지금 수준과 같지 않았다는 점도 있지만, 김정일이 대학 과정을 마쳤다고는 하나 사실상 일반인들의 자재들에 비하면 대학 과정을 마쳤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형식적 교육 과정이라는 점이다. 김일성은 군사 전문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유격 투쟁의 현장에서 교훈을 얻었고, 일정한 하위 장교급의 생활로부터 군 최고 통수권자에서 민족 내란 전쟁도 치룬 인물이라는 점에서 김정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오늘 북한에는 김일성종합군사대학·김일성정치대학이 있으며, 여기에서 김일성의 군사 철학과 전략 전법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순수한 김일성의 군사 업적과 군사

이론을 교육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북한노동당 관장 하에 운영되는 김정일 명칭의 '김정일정치군사대학', '봉화정치대학'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김정일 명칭 군사 교육 기관들에서는 '대남 혁명'의 핵심 골간을 육성하는 정치 군사 학교로서, 고급 첩보원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 교육 기관 역시 국제적 정탐 이론들을 북한화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차질은 있을 수 없다. 지휘 능력 면에서 김정일의 군사 지휘 능력에 관심이 가는데, 그것도 김정일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군사 조직을 통해 김정일의 이름으로 명령이 하달된다고 보면 정확하며, 그럴 경우 그의 지휘력도 능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집행 대상들이 최고 통치자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시되나 그 역시 군부내 당 조직들이 해결해주는 문제로서 커다란 문제거리가 없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당총비서, 당중앙위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인 김일성 사망 후 위원장 역할) 국방위 위원장(1998년 9월 5일 재선), 군 최고사령관(북한의 군사 조직은 인민무력성), 호위사령부-군단급, 평양경비사령부-군단급, 평양방어사령부-군단급, 당중앙위 군사위 직속 군수동원총국-군단급, 국가안전보위성 소속 국경경비대-군단급, 사회안전성 소속의 공병국-군단급 등의 7 개

계통으로 상호 복종 질서가 성립되지 않는 군사 집단들이 정규군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통일적 관리를 위해 최고사령부가 유사시를 대비 상설화되어 있다. 그외 교도대(최근, 지방군으로 명칭 변경), 노동적위대(민방위)와 붉은청년학생근위대로서 당뿐 아니라 군 부까지 장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일은 최근 몇년간 정치적 기반 약화, 경제 피폐와 식량 절약 등으로 체제 불안이 가중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 軍 중시 정책에 치우쳐 군부 끌어안기 일환으로 군 부대 방문을 일삼고 있다.

통치자로서의 인사 관리 비교

김일성은 통치자로서의 필요한 여러 부분을 갖추기 위해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그는 혁명과 건설에서 간부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큰 의의를 부여해왔으며, 대렬내 간부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꾸리는가에 따라 혁명의 승패를 결정하는 관건으로 평가해왔다.

김일성의 간부 관리 방식 원칙은 기본 계급 출신으로서 필요한 교육 과정을 마친 대상들 가운데서 혁명과 건설 사업을 통해 오랜 경험과 교훈을 체득하고 현실 속에서 검증된 인물 순위로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간부 관리와 인사 원칙은 계급적 논리보다 충성심 우위 원칙을 고수하면

서 현실에서 검증된 사상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들을 더 선호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인사 관리 특이점은 검증된 간부들이나 원로 인물들에 대해서는 예후가 김일성때보다 오히려 좋은 편이며, 이것은 자신의 직접적인 검증을 거치면 완전히 신임하는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은 간부들이 곤경에 빠지거나 빠지도록 유도하고 자신이 구원해주는 것처럼 인식시켜 철저히 자신의 충성파로 만드는 전술을 구사해오고 있다.

물론, 김일성도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김정일과 같이 조작한 빈도는 훨씬 낮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일은 간부들의 충성심 검증 방법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완전히 축출하여 견뎌내기 어려운 노동 현장에 내려보내고 장기간 지켜보는 식의 방식도 서슴지 않고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김정일의 간부 인사 관리 방식은 궁극적으로는 김일성에게서 터득한 방법이지만, 과거 김일성은 한 번 떼어버린 간부를 재등용하는 일은(최현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사망한 전 인민무력부장 최광, 전 호위사령관 전문섭, 전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장 이용무 등 재등용 빈도는 김일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간부들의 목을 자르는 문제도 그의 성격과는 정반대로 신중성이 있어 보이는 모

습이 나타났다. 물론, 김정일도 수많은 간부들을 숙청했고 재등용하지 않은 대상들도 무지기수지만, 과거 김일성이 행했던 관행에 비추어볼 때 예외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최근에 김정일이 숙청한 고위급들은 노동당 농업비서 서관희, 평남도당책 서운석, 정무원 부총리 김달현, 대외경제위 김정우,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이봉원 대장, 사로청 중앙위 제1비서 최용해를 비롯한 많은 인물들이 있으며, 강등 및 좌천시킨 대상들도 자강도당책 연형묵, 평북도당책 조세웅, 노동당 행정부장 김시학, 주러대사 손성필, 당 정보조사부장 권희경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난 9월초 新지배체제를 공식화하면서 정무원을 폐지하고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여 많은 각료들이 전문 분야 새 인물로 교체됐다.

국제적 견문과 능력의 차이점

김일성 부자의 당 통치 기간을 형식 상으로는 아버지가 49 년간을 통치해온 것처럼 보이고, 내용 상으로는 아버지가 30 년, 아들이 20 년 기간을 통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사실상 김정일에게 당권이 넘어간 정확한 시기는 1974년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김일성은 동서 냉전 속에서 국제적 관계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만 국한 유지시켜왔었다. 냉전 대결 구도 속에서 이같은 국

제 관계는 사실상 김일성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이 풍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사회주의 붕괴로 탈냉전도 맞고, 김일성시대와는 다른 국제 정치·경제 질서 속에 직면해 있다. 김일성은 냉전 정책 만으로도 국제적 지위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다면, 김정일은 과거 생부가 했던 방식 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으며, 이것은 점차 더 어려운 방향으로 흐른다는 사실이며 그도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반된 통치 환경에 대처해야 할 부자간의 국제 견문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학문적으로는 별 다른 차이점이 없지만 실천적으로는 교훈과 경험적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제한되었지만 반일 투쟁, 구소련의 망명 아닌 망명 생활로부터 해방 후에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 국한되기는 했으나 나름대로의 견문을 쌓을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구소련의 스탈린, 말렌코프, 흐루시초프, 브레즈네프, 체르넨코, 안드로 뽀프, 고르바초프에 이르기까지 역대 공산당 지도자들과의 유대를 그런대로 유지시켜왔으며, 중국의 모택동, 주은래, 화국붕, 덩소평, 펑 덕, 류소기, 양상곤, 효요방, 조자양, 강택민에 이르는 공산당 지도 인물들과도 유대를 유지하여 정치적 견해를 발맞추어왔다. 뿐만 아니라 유고의 이오시프, 프로즈, 찌토, 인도의

간디,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를 비롯한 일련의 국제 정치 인물들과도 교제해오면서 비교적 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비동맹 가입을 비롯한 자기만의 체제 유지를 위한 최선책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도 주체라는 지도 이념을 고집할 수밖에 없으리 만큼 국제적 관행과 순리에 적응하지 못했음을 응변으로 말해준다. 만약 김일성이 죽기 전에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라도 성사시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고 미국, 일본 등 서방 선진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세계 평화와 민족의 화해를 이루었다면 그가 죽은 후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것이 어찌면 김정일에게 부담이 될 과제로 남겨졌는지도 모른다. 현재 김정일이 대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그의 생존을 좌우하는 초미의 문제가 되고 있고 김정일과 노동당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 김정일이 안고 있는 국제적 현안들은 對미일 관계 개선을 전제로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현 4者회담과 앞으로 예견되는 6者회담을 잘 풀어나가는 문제일 것이다. 특히, 현재 지하 핵시설 건설 의혹을 푸는 것은 당면한 최대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제네바핵합의 이행의 실천성을 증명하는 사안으로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그리고 미사일 등 대량 살육 무기 개발과 그 판매 의혹 해

소 등은 김정일의 앞날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대한 국제적 문제들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이 김일성과 같은 국제적 안목이 부족할 수 있으나 북한통치체제 특성으로 볼 때 통치자의 개인 능력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안고 있는 국제적 사항은 국제 인권 단체들과 그리고 유엔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에 대한 의혹을 실증해야 할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김정일이 아직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기대를 걸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환상·중국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사실상 50년간 교훈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결과는 없다는 인식과 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동족인 한국과의 교류 협력은 민족내 진정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란 점이다. 97